

樂浪時代의 銘文考

— 瓦塼·封泥·印章을 중심으로 —

金 鍾 太

一 序 言

韓國樂浪遺跡에서 출토된 많은 遺物중에 瓦塼 銘文과 封泥 銘文은 일찌기 관심 있게 보는 학자들은 많았으나 체계적으로 研究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樂浪 文化는 韓國 古代 文化를 產出시키는 重要한 時期가 됨으로 마땅히 신중한 태도로 研究해야 할 것이다. 근래 日本에서 樂浪을 관심 있게 보아서 著書도 있었으며 많은 論文이 있었다(註①). 그러나 韓國은 몇개의 論文이 있을뿐 오히려 樂浪을 부인하는 說까지 있어(註②) 韓國에 있어서의 樂浪 研究는 中國과 日本에 비하여 극히 소극적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筆者는 數年間이 방면에 資料를 수집하여 이 미(樂浪時代의 銘文(註③)과(樂浪時代의 泉幣銘文考(註④) 등을 발표하였다. 아직도 漆器, 銅鏡 등의 銘文이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封泥와 印章 그리고 瓦塼銘文을 紹介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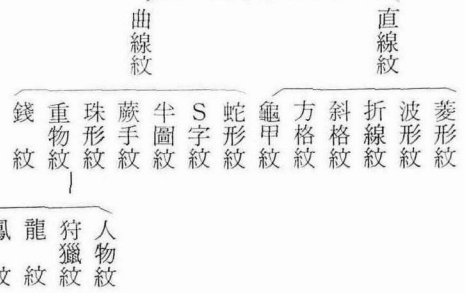
二 樂浪의 瓦塼銘文

韓國의 瓦는 대체로 上古時代 즉 樂浪時代 이전에 사용 유무를 고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원전 1·2세기 경에는 秦始皇의 戰國統一時期에 秦의 軍隊가 燕나라 軍事를 쫓아 鴨綠江을 건너온 후부터 漢武帝

의 漢四郡(樂浪, 眞番, 臨屯, 玄菟) 設置 사이에 中原의 文化가 韓國에 들어 오므로 平壤을 中心으로 당시 漢에서 사용하던 모든 文物이 들어 오게 되었다. 이때에 들어온 瓦家建築은 곧 漢四郡 全城에서 사용하였고 韓國 建築美術에 새로운 혁신을 주었다. 왜냐하면 韓國의 建築이 B C 1·2세기 경에 겨우 地下 穴居 및 草家生活에서 地上 및 瓦家建築生活로 옮겨 왔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註⑤). 그러므로 樂浪의 瓦家는 韓國 建築史上 草家와 穴居를 개량하는데 중요한 時期가 된다. 後漢말에 이르러 樂浪이 다시 帶方 兩郡으로 分裂되어 A D 313年(註⑥)에 高句麗에 멸망 할 때까지 각종 紀年瓦塼 등이 그 遺跡에서 계속 出土되고 있다(註⑦). 樂浪遺跡에서 出土되는 瓦塼은 平瓦(蓋瓦) 瓦堂과 塼종류가 出土되는데 平瓦와 瓦堂은 樂浪이나 帶方의 治址에서 出土되고 塼은 古墳墓에서 出土된다. 瓦塼의 銘文은 瓦銘文, 塼磚銘文, 瓦堂銘文 등으로 구분된다. 瓦堂은 現在의 平安南道大同郡大同江面土城里古樂浪治址에 있는 土城內에서 多數 瓦破片이 散在하여 그중에 상당한 瓦堂이 出土되었다. 出土된 瓦堂은 文字 瓦堂과 紋樣瓦堂으로 구분되는데 紋樣瓦는 漢瓦特有인 蔽手紋이 가장 많다. 紋樣瓦堂은 돌레를 四分하여 中心에 饅頭形의 突起가 있고 四分의 線은 二條 또는 三條로 하여 그 사이에 紋樣이나 혹은 文字를 내고 주위에는 가장자리를 두른다. 대부분의 紋樣瓦堂은 다소 무늬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 같은 樣式을 갖추고 있다. 文字瓦堂은 一種의 蔽手紋 내에 「樂浪禮官」이라는 四字를 쓰는 것인데 日人學者 關野貞은 이 文字體를 西晉時代의 隸書體로 考證하고 있다(註⑧) 또 文字瓦堂에는 「大晉元康」이라는 紀年銘文이 出土되었는데 元康(291~299)은 西晉의 憲帝의 年號이다. 이외에도 文字瓦堂으로서 「千秋萬歲」「富貴」「萬歲」 등의 銘文瓦堂이 出土되었다. 瓦堂은 樂浪遺跡 이외에 帶方郡 遺跡인 黃海道鳳山郡沙里院驛의 南方에 土城의 城壁이 있고 그 내부에서 多數의 瓦片이 出土되었는데 그 瓦의 製法과 紋樣이 樂浪遺跡의 各種 瓦와 같다.

瓦의 銘文은 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데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다

樂浪의 瓦博紋



대개 그 質은 견고하고 현재의 벽돌과 비슷하나 약간큰것으로 평균長이 33, 36 cm, 廣이 약 15 cm, 厚가 6 cm 정도이다. 文字는 대개 옆모서리에 陽刻이며 紋樣이 대부분이다. 간혹 文字가 있는것도 있어 古墳製作年代와 유물사용年代를 알 수 있게되어 貴重한 資料로 인정되고 있다. 또 여기에 나타난 陽刻紋樣들은 당시 漢에서 유행되던 瓦博紋樣의 대부분으로 漢의 美術史와 韓國의 美術史를 연관하는데 豊富한 資料를 제공하여 주었다. 裝飾된 紋樣을 분류해 보면 위과 같다(註⑨).

三 瓦博銘文의 種類

1 年號銘文類

一 建武十六年大歲在……(黃海道 信川郡 龍門面 禮隅里 八號古墳)

側面下部缺失、隸體正書

後漢光武帝建武十六年康子(A D四十年)

二 建武九年三月三日王氏造(側面)(黃海道地方出土)

□東□(小口)

隸書正書

後漢光武帝建武九年(三十三年)

三 光和五年韓氏造□ (黃海道 風山郡 文井面 土城里 唐土城出土)

側面三十·五×五·五 cm 隸體正書

四 興平二載□月貫氏造博 (平南 大同郡 大同江面 土城里出土)

側面一九×四 cm 隸體正書

五 嘉平二年二月五日起造(側面)(黃海道 信川郡 出土)

戶上(小口)

六 甘露…… (黃海道 信川 出土)

下部缺失 隸體正書

甘露는 三國魏高貴鄉公吳歸命侯 등이 있으나 어느시대인가 알 수 없음

七 景元元年七月廿三日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三三·五×六·〇 cm 隸體正書

八 魏文帝景元元年庚辰(二六〇年)

九 泰始七年四月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三一×五·五 cm 隸體正書

西晉武帝泰始七年(二七一年)

九 泰始十年杜奴村 (側面)(黃海道地方 出土)

晉故(小口)

- 側面 三〇×四〇—五〇、小口 一四・五×五 cm 隸體反書
西晉武帝泰始十年甲午(二七四)
- 十 泰始十年七月廿三日造 (平南大同郡 大同江面 出土)
側面 隸體正書
西晉武帝泰始十年(二七四)
- 十一 咸寧元年三月造(側面) (黃海道 出土)
五官彖作(小口)
側面 三〇×四・五一五 cm (小口) 一四×四・五一五 cm 隸體正書
西晉武帝咸寧元年乙未(二七五年)
- 十二 咸寧五年三月六日己丑造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 三二×四・五一五 cm 隸體正書
西晉武帝咸寧五年乙亥(二七九年)
- 十三 太康元年三月六日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 隸體正書
西晉武帝太康元年庚子(二八〇)
- 十四 太康元年三月八日王氏造 (黃海道 鳳山郡 出土)
側面 隸體正書
西晉武帝太康元年庚子(二八〇)
- 十五 太康三年吳氏造(側面) (黃海道 鳳山郡 文井面 松山里)
七月吳氏(小口)
側面 隸體正書
西晉武帝太康三年壬寅(二八二)
- 十六 太康四年三月廿七日造 (黃海道 信川郡 北部面 西湖里 出土)
側面 隸體正書
西晉武帝太康四年癸卯(二八三)
- 十七 太康四年昭明王氏造 (黃海道 出土)
側面 隸體正書
西晉武帝太康四年癸卯(二八三)
- 十八 太康四年三月□日王長造 (黃海道 出土)
側面 隸體正書
西晉武帝太康四年癸卯(二八三)
- 十九 太康七年三月癸丑作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 三五×三・四 cm 隸體正書
西晉武帝太康七年丙午(二八六年)
- 二十 太康七年三月二十八日王作 (黃海道 信川 出土)
側面 隸體正書
西晉武帝太康七年丙午(二八六年)
- 二一 君以太康九年二月卒故記之 (黃海道 安岳郡 龍川 面都雲里 北洞 出土)
側面 一八×五 cm 楷隸正書
西晉武帝太康九年戊申(二八八年)
- 二二 ……………月卒記之 右同
- 二三 元康三年三月十六日韓氏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 三〇×五 cm 隸體正書
西晉惠帝元康三年癸丑(二九三年)
- 二四 元康元年……………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 一八×四・五 cm 隸體正書
西晉惠帝(二九三年)
- 二五 元康五年八月十八日乙酉造 (黃海道 安岳郡 龍順面 下雲洞)
側面 三〇×五 cm 隸體正書
西晉惠帝元康五年乙卯(二九五年)
- 二六 建始元年韓氏傳 (黃海道 信川郡 龍門面 禮隅里 第五號古墳 出土)
側面 三一×五 cm 隸體正書
趙王倫建始元年(三〇一) 慕容詳建始元年(三九七)
- 二七 大安二年…………… (黃海道 信川郡 北部面 城里 出土)
側面 三一×五 cm 隸體正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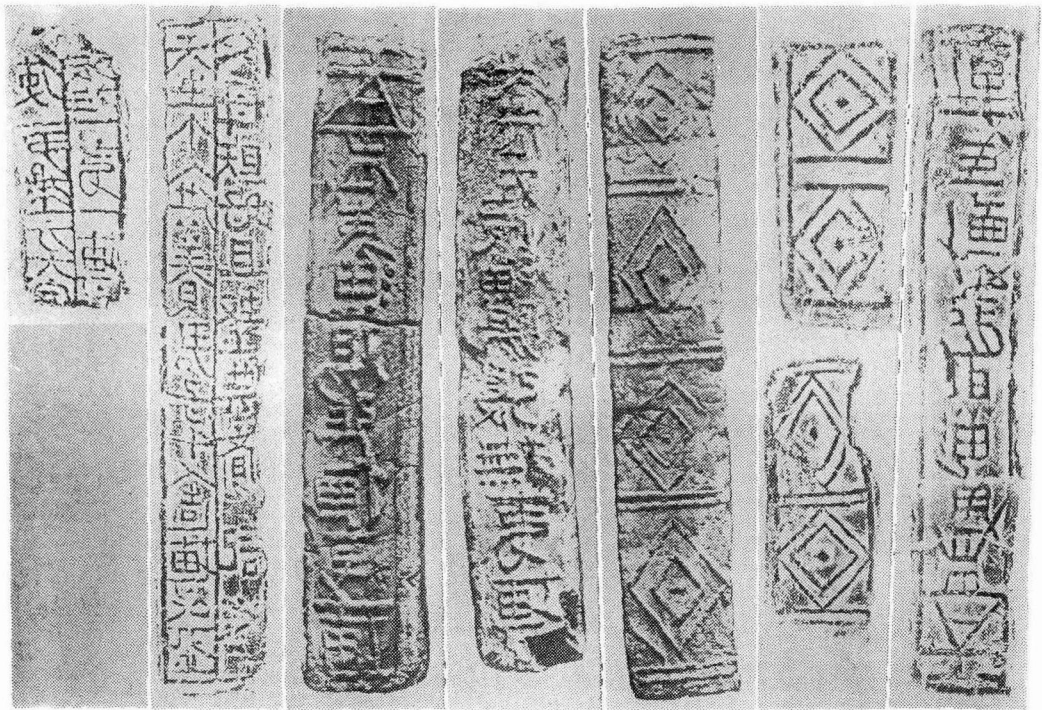


圖 5.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埴以亞父母既好且堅典齋記文埴，使君帶方太守張無夷埴拓本

圖 2. 大歲在戌漁陽張撫夷埴
大歲申漁陽張撫夷埴

圖 1. 大歲申魚張撫夷埴



圖 3. 哀哉大人奄背百姓子民憂惑夙夜不寧永側玄宮痛割人情埴，張使君埴



圖 4. 圖 3 的 拓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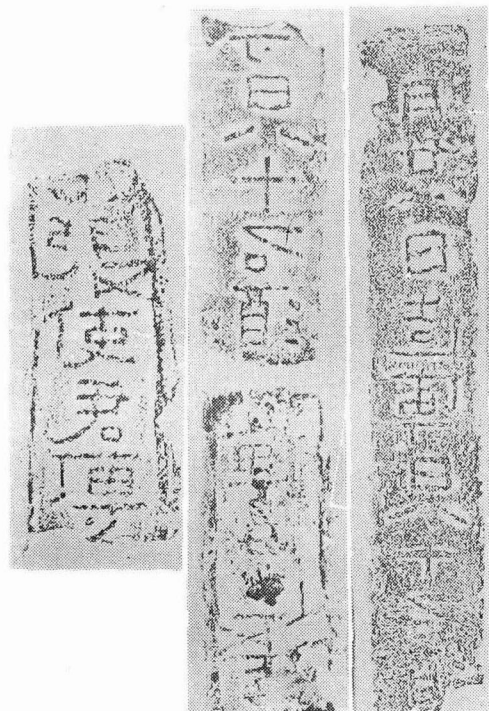


圖 7 月口日 造博日八十六，張使君博拓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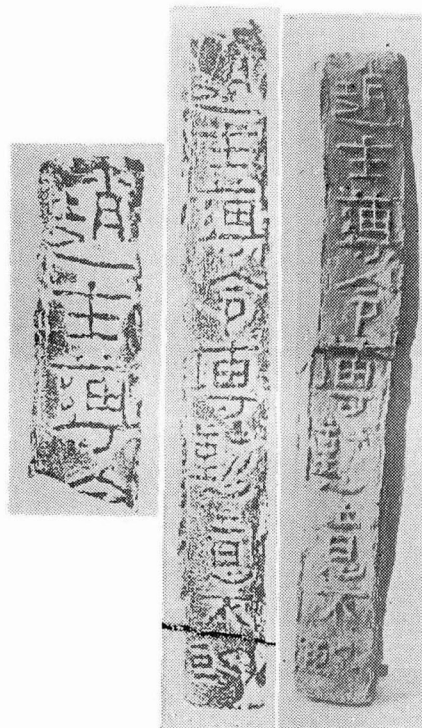


圖 6 趙主簿令博勲意不臥博，博拓本
趙主簿博拓本

- 二八 永嘉□韓氏造博 (黃海道 信川郡 南部面 書院里)
側面 五·五×六 cm 隸體正書
- 二七 建興四年會景作造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 三〇×五·五 cm 隸體正書
- 二〇 西晉愍帝四年(三一六年)
泰寧五年三月十 (黃海道 信川郡 龍門面 福隅里 第三號出土)
側面 三一×五 cm 隸書體反書
- 三一 泰寧年號^ㄹ 太寧元一三年(三三二—三三五) 晉明帝
太寧元(三四九) 後趙 石世代
- 三二 咸和十年大歲乙未孫氏造 (黃海道 信川郡 信川面 社穆里 出土)
側面 三一×六 cm 隸體正書
- 三三 西晉成帝咸和十年(三三五五年)
建元三年大歲在巳八月孫氏造 (黃海道 信川郡 龍門面 福隅里)
側面 三五×五 cm 隸體正書
- ① 建元元年(三二五年) 前趙
② 建元元一二年(三四三—三四四年) 東晉康帝
③ 建元元一六年(三五七—三六二年) 前涼
- 三三 永和八年二月四日韓氏造博 (黃海道 信川郡 北部面 出土)
側面 三〇×四·五 cm 隸體正書
- 三四 東晉穆帝永和八年(三五二年)
永和九年三月十日遼東韓玄菟太守領修利造(平安南道平壤驛構內)
側面 三五×五 cm 隸體正書
- 三五 東晉穆帝永和九年(三五三年)
元興三年三月四日王君造 (黃海道 信川郡 北部面 面湖里)
側面 一九×三·五 cm 隸體反書
- 三六 東晉安帝元興三年(四〇四年)
建始元年韓氏造博 (黃海道 龍文面 福隅里)

2 帶方太守張撫夷塼

- 一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側面) (黃海道 鳳山郡文井面昭封里 出土)
側面 三三×小口六×길이四五 cm 隸體反書
- 二 大歲申漁陽張撫夷塼(側面)
張使君塼 (小口) (黃海道 鳳山郡)
- 三 哀哉夫人奄背百姓子民憂感
夙夜不寧永側玄宮痛割人情(側面)
- 四 張使君(小口)
- 五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死(側面)
- 六 父母既好且堅典齋記之 (〃)
- 七 使君帶方太守(小口)
- 八 張撫夷塼 (〃)
- 九 趙主簿令塼勸意不臥 (黃海道 鳳山郡 文井面 張撫夷墓)
側面 三五·五×四·五 cm 隸體正書

3 年號不明塼

- 一 起其年三月世日 (側面) (黃海道地方 出土)
起三月卅日 (小口)
- 二 起三月廿日(上缺失) (黃海道 北方 出土)
側面 三〇×五 小口 一四·五×五 cm 隸體正書
- 三 側面 隸體正書
- 四 〇月二日丑〇 (黃海道 信川郡 加山面 內洞)
側面 四·五×一三 cm (尙缺 缺失되있음) 隸體正書
- 五 〇月〇年 (黃海道 信川郡 龍門面 福隅里)
側面 一九(尙缺 缺失)×五 cm 隸體正書
- 六 〇月廿九日王氏造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 一五(尙缺 缺失)×五 cm 隸體正書

六 〇三季三月 出土未詳

- 一 〇三季三月 出土未詳
側面 一三(尙缺 缺失)×五 cm 隸體正書
- 二 三季三月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 一〇(尙缺 缺失)×五 cm 隸體正書
- 三 〇月二日造 (黃海道 鳳山郡 文井面 鶴鷄里山城)
側面 一四·五(尙缺 缺失)×四·八 cm 隸體正書
- 四 〇〇年大歲〇〇孫氏造 (黃海道 信川郡 信川面)
側面 三一×五 cm 隸體正書
- 五 * 建元三年大歲在己八月孫氏造와 같은 것으로 생각됨.
- 六 〇年〇氏造 (黃海道地方 出土)
側面 一八(尙缺 缺失)×五 cm 隸體正書
- 七 〇年韓氏造 (黃海道 信川郡 南部 面書院里)
側面 五(尙缺 缺失)×五 cm 隸體正書

4 各種文字瓦塼

- 一 韓氏造塼 (黃海道 信川郡 龍門面 福隅里 第四號 出土)
側面 三五×五·五 cm 隸書正體
- 二 〇〇楊氏造記 (黃海道 信川郡 信川面 館村里)
側面 一三(尙缺 缺失)×四·五 cm 隸體正書
- 三 張氏〇 (黃海道 信川郡 信川面 館村里)
側 三二×六 cm 隸體正書
- 四 田氏塼 (黃海道 信川郡 龍門面 福隅里 第八號)
小口 一三×五 cm 隸體正書
- 五 王氏作(側面) (黃海道地方 出土)
仁義行事(小口)
側面 二六×一五 cm 隸體正書
- 六 上半의 三字는 隸書下半은 幾何學文樣

5 瓦堂銘文

- 一 千秋萬歲 隸體正書 (平南 大同 大同江面 樂浪古址 出土)
- 二 富貴 " 上同
- 三 樂浪禮官 " 上同
- 四 大晉元康 " 上同
- 五 西晉惠帝元康(二九一—二九九)
- 五 萬歲 隸體正書 上同
- 樂浪富貴 " 上同

6 文字平瓦銘文

- 一 保平□ (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土城里 出土)
- 二 □□侯 上同
- 三 戊午年 上同

四 瓦磚銘文의 考證

韓國의 樂浪·帶方遺趾出土의 瓦磚銘文은 대개 그 문양이 다른 遺物과 比較해서 좀 특이하다. 즉 그 銘文들이 모두 後漢과 西晉時代에 해당하고 樂浪禮官 등 몇개만 前漢時代에 해당된다. 이것은 中國에 있어서 瓦磚에 銘文을 刻하는 流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中國出土 瓦磚銘文을 살펴보면 四川省成都出土 漢의 畫像磚에 紀年 瓦磚이 상당히出土되었는데 그제 작년대가 모두 後漢中期에서 魏·晉期間 즉 西紀一世紀末부터 三世紀 中葉까지 약 二百年 左右인 「永元八年」 「延光二年」 「永和二年造」 「建興四年五月六日」 등의 年號가 보인다(註⑩). 이것은 中國 瓦磚銘文의 표준적인 年號는 아니고 前漢時代의 「竟寧元年」(BC三三年) 「建平」(哀帝 BC 六—三) 等紀年瓦磚銘文 등도 있다

(註⑩). 中國인들이 器物에 銘文을 刻하는 것은 種類에 따라 다르다. 靑銅器에는 殷代의 鐘鼎文字가 보이고 漆器에는 戰國末葉부터 前漢時代까지 盛行하였고(註⑫) 瓦磚銘文은 前漢末葉에서 부터 시작하여 後漢을 거쳐 魏·晉時代에 가장 盛行하였다. 韓國出土 瓦磚銘文들도 그 영향을 받아 中國보다는 약간 늦은 後漢末에 西晉 時期에 가장 많이 출토된다. 즉 韓國의 瓦磚銘文 역시 그出土 범위가 중국 瓦磚銘文 流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韓國出土 磚의 銘文을 분류해 보면 初·中·末三期로 나눌 수 있다. 初期는 後漢 末로서 대개 이 시대에 해당하는 瓦磚 銘文이고 中期는 魏(三國時代)代로서 製作者와 墓主人의 氏名이 記入되어 있으며 末期는 魏末 晉代로 氏名 및 故人의 哀辭를 표현하는 詩句가 보인다. 즉 이것은 黃海道 風山郡 文井面 昭封里에서出土된 帶方太守張撫夷 磚에서 볼 수 있다. 後漢 시대의 磚銘文으로는 建武, 光和, 興平, 嘉平 等の 年號가 보이고 魏代에는 甘露, 景元 年號가 보이며 西晉의 年號로는 泰始, 咸寧, 太康, 元康, 太安, 永嘉, 建興, 泰寧, 咸和, 建元, 永和, 元興, 建始 등이 보인다.

氏名瓦磚으로는 一九三二년에 平壤驛構內에서 발견된 「永和九年三月十日遼東韓玄菟太守領修利造」라는 명문이 있는데 玄室의 西壁中間에 陽文으로 되어 있었다. 永和九年은 東晉의 穆帝西紀 三五三年으로 이 年代는 樂浪郡 領望의 西元 三一一년부터 一一〇년까지의 일이다. 또 銘文의 「領」字는 東晉時代에 領軍이라는 武官이 있었는데 晉書 東晉簡文帝 咸安二年條에 「六月遣使拜百濟王餘句爲領東將軍領樂浪太守」라는 기록이 있고 근래에 발굴된 公州의 武寧王陵에서出土된 墓誌銘에 「領東大將軍百濟斯麻王……」이라고 하였는데 이 列文의 領東은 모두 玄菟太守 領과 같은 뜻으로 생각된다. 또 銘文의 「韓」字는 地名으로서 지금의 遼東省 三韓縣으로서 漢代에는 玄菟郡이었으며 東晉時代에는 高句麗의 세력에 밀려 遼東의 僑郡에 병합되었고 그 뒤에는 高州城이 되었다. 그럼으로 「遼東韓玄菟太守」는 遼東의 玄菟僑郡太守로 해득된다. 韓玄菟太守의

人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다음 黃海道鳳山郡文井面昭封里 帶方太守 張撫夷墓에서 出土된 銘文 瓦塼들은 韓國出土 銘文중에 가장 가치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墓主, 紀年, 死者의 죽음을 애도하는 哀辭歌 등이다. 또 韓國에서 행해진 詩歌중 가장 오래된 詩라고 할 수 있다. 그 銘文을 차례로 살펴보면 우선 紀年 銘文과 墓主가 있는 塼으로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
大歲申漁陽張撫夷塼」

等이 있는데 앞 銘文의 戊字와 뒷 銘文의 申字는 合하여 戊申年으로 解讀되는데 이 干支는 西晉의 武帝太康九年戊申(西紀二八八)년과 東晉의 安帝義熙四年(西四〇八)년이 있어 어느 戊申年에 해당되는지 考證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墓主人에 대하여는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
使君帶方太守張撫夷塼」

이라는 文字로 보아 現遼東의 漁陽人 張撫夷가 帶方太守로 와서 죽게되자 이 大墓를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撫夷가 人名인지 官名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撫夷란 變방을 關리하는 官名이기 때문이다. 다음 墓를 축조하는데 감독을 하는 官리가 있는데 「趙主簿令 勸意不臥」라는 銘文에 趙主簿란 小官吏로 趙는 姓氏 主簿는 官名이나. 또 勸不臥란 銘文은 겨울리하지 않고 눕지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음 銘文중에 가장 가치있는것은 哀辭歌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살펴보면

「哀哉夫人, 奄背百姓, 子民憂感(戚)
夙夜不寧, 永側玄宮, 痛割人情
天生小人, 供養君子, 千八造塼
以至(葬)父母, 既好且堅, 典齋記之
八月廿八日, 造塼日, 八十石矣」

「슬프도다 大人이여 백성을 등지시고 자식과 백성격정에 일찍이 편한히 잠한번 못추무시고 영원히 玄宮을 떠나 인정을 끊으셨음니까 이 못한 소인이 君子를 공양하기 위하여 千人을 동원하고 瓦塼을 만들어 父母를 장사지내 이미 좋게 그리고 단단하게 되었으니 법에 따라 記錄을 했음니다. 戊申年 八月廿八에 塼을 만들어 八十石으로 제주를 올립니다.」

라는 哀辭文이 있다. 이 詩文은 일찌기 後漢 獻帝建安(一九六~二一九)중에 태어나서 魏, 元帝 景元四年(二六三)에 죽은 阮籍으로부터 始作한 詠懷詩派의 影響으로 西晉時代에 盛行한 詠懷詩派의 一種이며 當時社會에서 流行된 詩風을 이 瓦塼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註⑩).

다음 瓦堂의 銘文은 대부분이 古語語인데 中國에 있어서의 일찌기 官瓦堂文이 出土된 일이 있었고 秦代이 후 漢에 와서는 數百種의 瓦堂이 出土되었다. 樂浪出土의 瓦當은 오래동안 漢의 影響을 받아 瓦堂 전체의 形態와 文樣 銘文등의 내용이 모두 漢의 瓦堂과 같으며 隸書體의 文字形態 역시 같다. 한가지 다르다면 中國의 瓦堂에 비하여 그 文字가 매우 심세하고 整齊한 한국적 美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樂浪出土 瓦堂중에 「樂浪禮官」이 있는데 禮官은 歷史에 따라 그 임무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漢書禮樂志에는 禮儀, 祭祀, 音樂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樂浪郡에 禮官을 설치했다는 文獻의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 「樂浪禮官」과 「孝文廟銅鍾」이 출토됨으로 樂浪에 禮官이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註⑪).

끝으로 平瓦 중에 약간의 銘文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大洞江面 土城里出土로 「孫保□」와 「□□侯」 「戊午年」 등이다. 이 平瓦의 銘文에 「□□侯」는 어느 世代의 封侯인가는 모르지만 樂浪時代에 歷代로 侯로 封한 記錄을 살펴 보면 《史記》朝鮮列傳에

「封參爲濇清侯, 陰爲首侯, 峽爲平州侯, 長爲畿侯, 最以父死頗有功爲 溫陽侯」라고 하여 漢 四君 設置 당시 모두 侯로 封하였으나 孫保侯는 어느 시대에 누구를 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五 封泥 및 印章銘文

封泥는 印의 일종으로서 人類가 印을 使用한것은 東洋보다 西洋이 먼
 저인 것 같다. 古代 西洋의 메소포타미아의 王國과 埃及 希臘, 로마에
 서 모두 印章을 사용했으며, 中國에서는 殷代의 靑銅器上에 印과 유사한
 銘文이 남아있으며 戰國時代와 秦에서는 一般의 印章을 사용했다.
 印은 私書信이다 公文書上의 信物의 표시이며 그 種類는 金·銀·銅·
 封泥·木·牌 등이 있다. 封泥는 이와같은 種類中의 하나로 그 최초의
 발견은 희랍과 로마에서 먼저 사용했다고 한다.

印章의 구분은 春秋戰國時代에 이미 天子로부터 下級 官리에 이르기
 까지 使用 규정 이 있었고 秦代의 秦始皇帝의 玉璽는 藍田山의 石은 李
 斯가 「受命天既壽永」이라고 써서 刻하였다 한다. 漢初에는 印章의 사용
 에 관한 기록이 嚴格하게 記錄되어 있는데 皇帝는 六璽로서 白玉이며
 文樣 장식은 螭虎鈕라고 하였다. 이 六璽의 종류를 들어 보면

- 皇帝行璽
- 皇帝之璽
- 皇帝信璽
- 天子行璽
- 天子之璽
- 天子信璽

등이 있었다. 《漢書》〈百官公卿表〉上에 印章에 관한 記錄이 상세하다.
 「地節三年置大司馬, 不冠將軍, 亦無印綬官屬, 成帝綬和元年初賜大馬金
 印紫綬」 「凡吏秋此二千石以上 皆銀印青綬, 秩六百石以下, 皆銅印黑綬,
 大夫博士御史謁者郎無, 其僕射御史治書尚符璽, 有印綬, 此二百石以上,
 皆銅印黃綬」(註⑯). 이 文에서 漢代에 사용하고 있는 印章의 내용과
 綬印의 色을 알 수 있는데 즉 綬는 紫綬 靑綬 綠綬 黑綬 黃綬 등이 있고
 계급의 구별에 따라 四采 三采 二采 등으로 구별한다. 이것은 또 《後漢

書》與服志下 紫綬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략 그 내용을 살펴 보
 면 다음과 같다(註⑰).

相國丞相(秦官) 金印紫綬(綠綬)
 大尉 " " (")

大司馬 {地節三年置 無印綬
 {綬和元年初賜 金印紫綬

御史大夫(秦官) 銀印靑綬(綬禾元年實名大司空金印紫綬)
 大傳 金印紫綬

大師大保 金印紫綬
 前後 諸侯王(高帝初置) 金印紫綬(漢不常置)

秋二千石以上 銀印靑綬(師古註, 漢舊儀云, 銀印背龜鈕其文
 曰章, 謂刻曰某官之章也)

秋文百石以上 銅印黑綬
 秋二百石以上 銅印黃綬

以上 예문에서 官職의 등급에 따라 印綬의 色彩와 文의 차이등은 나
 타낼 수 있다. 즉 직급에 따라 金·銀·銅으로 구별되고 鈕의 形態도
 麋佗, 龜, 鼻 등으로 달라지며 文의 내용도 璽, 章, 印 등으로 구별된다
 印綬란 官의 등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장신구로 사용했으며 그 기원은
 春秋戰國時代 부터 璽王등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있다. 印은 개인
 의 私印 외에 官印, 倉印, 庫印, 發弩印 등이 있는데 樂浪 躡蹟趾에서
 출토되는 印은 대부분 官印과 官職印으로 漢代의 格式과 규격을 엄격히
 따르고 있다. 대략 官印의 규정은 一寸四方을 규정하고 있다. 《漢書》
 徐璆傳에

「衛宏曰, 秦以前以金銀玉爲方寸璽」

라고 하여 秦代 이전의 印章이 方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근래에 湖南長沙에서 출토되는 漢의 印章과(註⑩) 또 一九六八년 九月에 陝西省咸陽市的 渭河 북쪽에서 孔忠良 君이 우연히 물속에서 西漢高祖 劉那의 皇后인 呂后의 玉璽를 발견하였다(註⑪)。 이로써 漢의 記錄과 대조하여 현재 출토되고 있는 皇帝의 玉璽와 관리의 章, 하급관리의 印 등을 고찰할 수 있으며 더구나 樂浪 유지에서 출토된 印章과 封泥는 漢의 제도를 연구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라 하겠다。

대략 지금까지 출토된 印의 資料를 살펴보면 天子의 印은 白玉螭虎鈕 諸侯王은 黃金橐駝鈕, 列侯는 黃金龜鈕, 丞相과 將軍은 黃金印龜鈕, 二千石은 銀龜鈕, 太守, 縣令, 長, 丞尉는 銅印으로 龜鈕등이다。 《後漢書》輿服志를 살펴보면 建武元년에 復設한 各官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諸侯王 金璽綬綬
- 公侯 金印紫綬
- 九卿執金吾 二千石、銀印青綬
- 大長秋、將作大匠 二千石、銀印青綬
- 度遼諸將軍
- 郡太守國傅相
- 校尉中郎將
- 諸郡都尉
- 諸國行相
- 中尉內史
- 中護軍司直
- 中外官帶書令御史中丞 中二千石、銅印黑綬
- 治書侍御史公將軍長史
- 丞正平諸司馬
- 中宮王家僕洛陽令 秋千石、銅印黑綬

- 尙書中謁者黃門冗從
- 四僕射諸郡監
- 中外諸都、官令都侯
- 司農部丞、郡國長吏丞
- 侯司馬千八
- 秋六百石、銅印黑綬

- 洛陽市長
- 秋四百石、銅印黑綬
- 主家長
- 秋四百石、銅印黑綬
- 諸曹長楫權丞
- 秋三百石、銅印黑綬

이상 예문에서 漢代의 官職別 印章과 綬印의 色彩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음 封泥의 발견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封泥는 漢代에 가장 많이 성행하였는데 漢代의 각종 서적을 참고해 보면 《漢舊儀》에

「皇帝行璽凡封之璽、賜諸侯王書、信璽發兵徵大臣、天子行璽策拜外國事天地鬼神、璽皆以武都紫泥封、青囊白素裏、兩端無縫、尺一板中約署、」라고 하였고 《漢書》中の 李雲 傳에는 「政化目損、尺一拜用、不經御省」

라고 하였고 《史記》匈奴傳에는 「漢遺單于書牘、以尺一寸、辭曰皇帝敬問匈奴大單于、無恙所遺物、及言語云云中行說令單于遺漢書以尺二寸牘及印封、皆令廣大長倨傲、其辭曰、天地所生日月所置匈奴大單于、敬問漢皇帝、無恙所以遺物言語亦云」

라고 하여 모두 封印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皇帝의 書信은 板으로 잘 포장하고 그 板의 중간에 皇帝의 璽를 찍고 길은 封할 때 이것은 도중에서 뜯어 보지 못하게 하는 秘封의 표시으로 封泥를 사용한다。 즉 封泥는 흙을 불에 구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뜯어보면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封泥의 형상과 종류에 대한 記錄도 상당히 볼 수 있는데 漢書에(註⑫)

「中黃門田客、封詔記、盛緣綿方底、封御史中丞印」

라고 하였고 後漢書 卷十六 鄧訓傳에

「東觀記曰、訓故吏最貧羸者、學國念訓帶所服藥 北州少乏、又知訓好青泥封書、從黎陽步推鹿東於洛陽、市藥選、過趙國易陽并載青泥一櫬至上谷、遺訓其得人心如是」

이라 하였으며 또 西京雜記에 第四卷에는

「中書以武都紫泥爲墜室、加緣緹其上」

이라 하였으며 續漢志 白官表二에는

「守宮令一六百石、木注曰、主御史紙筆墨及尚書財用諸物及封泥」

이라는 記錄등이 보인다. 封泥의 종류에는 青泥、黃泥、金泥、紫泥、石泥 등이 있었다. 封泥는 漢代의 관공서에서 筆墨 紙帛과 함께 사무 용품으로 이것을 관장하는 관리는 守宮令이었다. 이와같이 封泥의 용도는 秦、漢、三國 시대에 簡牘을 封하여 도중에서 뜯어보지 못하게 사용한 일종의 印章이라고 할 수 있다(註②).

樂浪出土封泥、印章銘文

韓國의 封泥는 대부분 漢四郡 유적지에서 출토된다. 그중에서도 樂浪郡의 治址였을 平安南道大同郡大同江面土城里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최초로 封泥가 발견된 것은 一九一八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보다 二년이나 앞선 一九一六년에 關野貞 박사가 大同江面石岩里、貞柏里 古墳을 발견했을 때 몇개의 封泥가出土된 일이 있었다(註③). 그 후 平壤市에 거주하고 있던 日本人 山田針次郎氏가 二個의 封泥를 수집하였으며 一九一九년에는 「樂浪太守章」 「誥長印」 등을 蒐集하였는데 一九二二년에 關野貞 박사가 이 두개의 封泥가 출토된 지점을 발굴 조사한 결과 이 地點이 城의 한 중앙부분의 高臺이며 많은 瓦片 土器片이 산재한 것으로 보아 樂浪 유적지임을 밝혀 냈고 一九二二년에는 土城里의 한 능부가 土城西北 쪽 발가운데에서 封泥를 발견하여 당시 日本인 關口長半에게 주었는데 關口氏는 다시 그 지점을 발견하여 多數의 封泥를 발견하였다(註④). 그 후 平壤市 경찰서에 근무하는 日本人 中村

眞三郎氏와 商工會社 기자인 諸岡榮治 수중에 들어온 유물중 多數의 封泥가 있었다. 이 유물들은 대부분 國立博物館으로 돌아와 조사를 하였다. 지금까지 출토된 封璽와 印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封泥銘文

- 一 「樂浪太守章」 一九一九 樂浪治址土城內에서 발견 一九二三年 國立博物館에 歸納 三行·小篆體 外廓橫 3cm 印面縱 二·五cm 橫 二·二五cm
- 二 「樂浪大尹章」 一九三三年 樂浪治址土城里 출토 國立博物館所藏 外廓縱 三·三〇cm 橫 3cm 厚 〇·六三cm 印面縱 二·一〇cm 橫 二·一〇cm
- 三 「樂浪大尹章」 國立博物館所藏 나랑유적지 출토, 印面左上缺失 外廓縱 二·五五cm 橫 二·六cm 厚 〇·四〇cm 印面縱 二·〇五cm 橫 二·一〇cm
- 四 「樂浪大尹章」 國立博物館藏, 樂浪治址出土 印面輪廓上部缺失 文字不明, 外廓縱 三·二〇cm 橫 二·三五cm 厚 〇·五五cm 印面縱 二·〇五cm 橫 二·一〇cm
- 五 「樂□大□□」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출토 缺失이 많으나 「樂浪大尹章」으로 생각된다.
- 六 「□浪□丞」 國立博物館藏, 樂浪유지 土城里出土, 印面이 약간 缺失되어서 現在로는 「浪」 「丞」字만 解讀할 수 있음. 外廓縱 二·二〇cm 橫 二·四厚가 〇·七〇cm 內面橫 二·〇五cm 字徑 〃cm
- 七 「樂浪□守□」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土城里出土 四字二行 篆書體 八 「樂□長□」 國立博物館藏, 土城城出土 上半 中央部의 斷片에 「樂」字와 「長」字가 있어 樂浪長印으로 해석됨.
- 九 「□浪□史」 國立博物館所藏, 樂浪遺址土城里 출토 印上右半部 缺失 印面橫 二cm 厚 〇·五cm 字徑 一·〇〇cm
- 一〇 「□浪□□」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土城里出土 印面 대부분이 缺失 樂浪守丞으로 해석됨.
- 一一 「樂浪大尹五官掾高□□」 國立博物館所藏, 樂浪遺址 출토 三個部

分으로 파괴되었는데 三行으로 表出되었고 文字가 극히 細美한 小篆體이다. 印面縱이 一·九 cm 橫 一·九〇 cm

二二 「朝鮮令印」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土城里 출토 二行四家 篆書體 外廓 二·七 cm 橫 二·一七 cm 이다. 朝鮮令印은 日本人 富春晉二氏수장품 중에 完形의 朝鮮令印이 있었는데 外廓縱 二·八〇 cm 橫 二·八〇 cm 印面縱 二·二五 cm 橫 二·三〇 cm 이고 또 한개는 역시 日人 中村眞三郎氏 수집품중에 方錐形 石印의 朝鮮令印이 있다.

二三 「朝鮮右尉」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出土 印右上部가 약간 결실되었으나 文字는 完全하다. 外廓縱 二·四〇 cm 橫 二·五〇 cm 印面縱 二·二五

二四 「朝鮮右尉」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土城里 출토 右部 「朝」字가 파손되고 「尉」字 下半이 결실되었다. 印面이 약 二·〇 cm 字徑이 一 cm 厚가 〇·五 cm

二五 「誦郡長印」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출토, 二行四字 隸書體 外廓縱 二·七〇 cm 橫 二·六 cm 印面 二·一三 cm

二六 「誦郡丞印」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출토, 文字體는 小篆字體로 위의 誦郡長印과 같다. 外廓橫 三·一〇 cm 厚 〇·六 cm 印面 二·〇八 cm

二七 「誦郡丞印」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출토, 文字가 세밀하고 誦郡長印과 같이 小篆體로 동일한形이다. 外廓縱 二·四五 cm 橫 二·五〇 cm 厚가 〇·七 cm 印面 二·一〇 cm

二八 「誦郡丞印」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출토, 右上部만 遺存, 文字는 세밀하고 엄정한 小篆字體다. 字徑 一·〇〇 cm

二九 「邯鄲」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土城里 출토, 封泥의 右下部만 遺存함. 字形은 小篆體로 誦郡長印과 같음. 厚가 〇·六〇 cm 字徑 一·〇五 cm

三〇 「涇長」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土城里 出土, 封泥의 上半部만 遺存하고 輪廓이 결실되었으며 「涇」자와 「長」字만 병렬하여 남아 있는데 涇水長印으로 해석된다. 印面橫 二·一四 cm

三一 「水」 國立博物館藏, 浪樂遺址 출토, 上部가 결실되었음. 涇水長印으로 해석됨. 文字의 形態가 크며 外廓橫이 二·九〇 cm 印面橫 二·一三 cm

三二 「含資」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土城里 出土, 右半部만 遺存 下部의 表面은 磨滅이 심한데 「含」字의 아래字는 「資」字가 분명하다. 字徑 一·〇〇 cm 厚 〇·五 cm

三三 「黏」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土城里 출토, 下半部만 遺存 「長」字는 명확하고 「黏」字는 不明確하다. 字徑 一·〇〇 cm 厚 〇·四 cm

三四 「蟬」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土城里 出土, 右半部가 결실되고 「蟬」字와 「印」字가 하선명다. 아마 黏蟬長印이거나 黏禪丞印으로 해석된다. 外廓 二·三〇 cm 厚 〇·四 cm 印面橫 二·一〇 cm

三五 「黏」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土城里 출토, 下半部만 遺存 「長」字는 명확하고 「黏」字는 不明確하다. 字徑 一·〇〇 cm 厚 〇·四 cm 印面縱 二·〇〇 cm

三六 「遂」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土城里 出土, 右下部二字가 不明確하나 遂成長印이 確實하다. 外廓縱 二·四 cm 橫 二·三三 cm 印面 二·〇五 cm 厚가 〇·八八 cm

三七 「成」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土城里 出土, 「成」字와 「印」字가 있어 遂成長印이 아니면 遂成丞印으로 해석되고 결실이 심하여 크기를 알 수 없다.

三八 「成」 國立博物館藏, 樂浪遺址 土城里 出土, 「成」字와 「印」字가 있어 遂成長印이 아니라 遂成丞印으로 해석되고 결실이 심하여 크기를 알 수 없다.

三九 「增地長印」 完形으로 二行四字의 小篆體, 外廓縱 二·六九 cm 印面縱 二·一五 cm 橫 二·一七 cm

四〇 「增地丞印」 完形으로 「地」字와 「印」字가 분명치 못하고 小篆體의 形대가 세밀하다. 外廓縱 二·三〇 cm 橫 二·七五 cm 印面 二·〇〇 cm

四一 「駟望丞印」 左 下半部가 遺存하여 요행히 전체를 해득할 수 있게 되었다. 字徑 一·〇〇 cm

- 二·六八 cm 横二·二六 cm 印面縱二·二〇 cm 横二 cm
- 三四 「海□□□」右則 일부에 「海」字만 남아 있음. 海字 下部에 「冥」字의 약간 부분이 보일뿐이다. 字徑一·〇〇 cm
- 三五 「長峯長印」印面을 十字로 四分하여 한자씩 각각 刻出하였다. 윤곽이 약간 결실되었을뿐 대체로 完形品이다. 外廓縱二·六五 cm 横二·六〇 cm 印面二·一〇 cm²
- 三六 「長峯丞印」上部가 약간 파손되었지만 해독은 가능하다. 文字體는 위의 長峯長印과 같은 小篆體다. 印面橫二·一五 cm 厚가 〇·五 cm
- 三七 「屯有令印」下部 左右가 약간 결실되었지만 대체적으로 完形品이다. 위의 長峯長印과 흡사하다. 外廓橫三·〇〇 cm 厚가 〇·五六 cm 印面橫二·一〇五 cm
- 三八 「有丞印」上部 右則이 파손되었다. 屯有丞印으로 解讀된다. 文字體는 가는 小篆體이다. 外廓縱二·二〇 cm 横二·五〇 cm 印面二·〇五 cm
- 三九 「昭明丞印」윤곽이 결실되었을뿐 비교적 完全하고 「明」字가 좀 선명하지 못하다. 印面二·〇五 cm² 厚가 〇·八八 cm
- 四〇 「明□□□」파편인데 明字만 선명하다. 文字가 작고 가늘며 字徑〇·七 cm
- 四一 「提奚長印」불에 탄 흔적이 있고 右上部가 결실되었고 上右邊이 파손되었으나 대체로 完전하다. 外廓縱二·五 cm 横二·一 cm 印面二·〇八 cm²
- 四二 「提奚丞印」完全品이며 文字가 확실한 小篆體다. 外廓縱二·三五 cm 厚〇·七 cm 印面縱一·九五 cm
- 四三 「渾彌長印」右部가 약간 파손되었으나 文字 해독은 가능하다.
- 四四 「渾彌長印」右上下부분이 파손되었음. 그러나 文字는 명확하다. 外廓이 二·五〇 cm² 印面二·〇五 cm²
- 四五 「渾□□□」右上部에 「渾」字만 남아있다. 渾彌長印 또는 渾彌丞印으로 해석된다.

- 四六 「彌□印」上半部와 下左邊이 파손되었음. 겨우 「彌」字와 「印」字만 判讀할 수 있다.
- 四七 「東曉長印」下部가 약간 파손되었으나 文字 많은 解讀할 수 있다. 外廓橫二·〇七 cm 印面橫二·〇〇 cm 字形一·〇〇 cm
- 四八 「東□長印」印의 下部가 약간 파손되었음. 文字의 幅이 넓고 小篆體로서 東曉長印으로 해독됨.
- 四九 「蠶台長印」左右 및 上部印角이 파손되었음. 그러나 文字의 해독은 가능하다. 外廓縱二·五五 cm 横二·二〇 cm 印面一·一三 cm² 厚〇·七 cm
- 五〇 「蠶台丞印」印面이 完전하고 文字가 선명한 二行四字體의 小篆體다. 外廓縱二·五五 cm 横二·七〇 cm 印面二·一〇 cm²
- 五一 「邪頭昧室印」完全品으로 文字가 선명한 小篆體로서 二行五字다. 外廓縱二·六 cm 横二·八 cm 印面二·一三 cm²
- 五二 「頭□長」上半部가 결실, 印面橫二·〇二 cm 厚가 〇·五 cm 〇·六 cm
- 五三 「前莫□□」左半이 결실, 印面縱二·〇二 cm
- 五四 「□□令□」左上部에 「令」字만 남아있음. 字徑一·〇〇 cm 厚〇·四〇 cm
- 五五 「□□長印」左半部가 결실되었음. 字徑一·〇五 cm 厚〇·五〇 cm
- 五六 「□□長印」左半部가 결실되었으나 「長」字와 「印」字는 完전함. 字徑一·〇〇 cm 厚가 〇·六 cm
- 五七 「□□長印」左半이 파손되었음. 字徑一·〇〇 cm
- 五八 「□□長□」左上部만 遺存, 字徑一·〇〇 cm
- 五九 「□□長□」上半이 남아 있는 파편으로 「長」字만 完전함. 一·〇五 cm
- 六〇 「□□丞印」左半部가 파손되었음. 文字가 심세한 小篆體의 二行四字體, 外廓縱二·六〇 cm 厚〇·五 cm 印面縱二·〇三 cm
- 六一 「□□丞印」上半이 결실되었음. 外廓縱二·九 cm 厚〇·七 cm 印

面縱二·九 cm 厚〇·七 cm 印面縱二·一〇 cm

六二 「□□丞印」 左上부에 「丞」字만 남아있음. 대부분 파손되었음.

字徑 一·五〇 cm

六三 「□□丞印」 上半部가 모두 파손되어 文字 역시 명확하지 않음.

字徑 一·〇 cm

六四 「□□丞」 左邊 中央部만 남아있음. 모두 파손되었으나 右邊 一字가 「丞」字로 해독된다.

六五 「□□□□」 左則만 남아 있는 瓦片인데 「尉」字만 남아있음.

六六 「□□□□印」 左邊 下部에 「印」字가 있음. 모두 五片으로 파손되었음.

六七 「倉印」 淡黃褐色의 이 封泥는 刻이 깊고 印文이 明確하지 않지 만 倉印으로 解讀된다. 外廓縱二·八二 cm 橫二·六〇 cm 厚〇·五〇 cm 印面縱一·八〇 cm 橫一·一五 cm

六八 「萬歲」 灰黑色 瓦形의 中央에 右向하는 새(鳥)가 있고 右端下에 萬歲二字를 小篆體로 刻出하였다. 封泥는 완전하며 外廓二·三〇 cm 厚〇·五〇 cm 印面一·九九 cm 橫二·〇〇 cm

六九 「王顯印信」 右下 右측이 약간 결실되었으나 王顯印信임을 알 수 있다. 四字二行의 小篆體이며 官印이 아닌 私印이다. 外廓縱二·四〇 cm 橫二·八〇 cm 厚〇·八 cm 印面縱二·〇〇 cm 橫二·一〇 cm

七〇 「王超信印」 上半部가 약간 결실되었으나 王初信印으로 解讀됨. 五字二行의 小篆體로 私印이며 外廓縱二·六〇 cm 厚가 〇·四 cm 印面 橫一·四〇 cm

七一 「韓賀之印」 印面의 文字가 선명한 四字二行의 小篆字體로 역시 私印이다. 外廓縱二·七 cm 橫二·六七 cm 厚〇·五〇 cm 〇·九〇 cm 印面 一·二八 cm

七二 「高詡私印」 비고적 完形品으로 印面의 주변이 약간 磨損되었다

外廓縱二·七〇 cm 橫二·六七 cm 厚〇·五〇 cm 〇·九 cm 印面一·二八 cm

七三 「玉益」 左部가 결실되었고 印面下部가 파손되어 文字가 明

확하지 않다. 外廓縱二·五〇 cm 印面縱一·三八 cm 橫一·四〇 cm

七四 「□□私印」 前半部가 결실되어 겨우 「私印」 두자만 해독할 수 있음. 印面縱一·二五 cm

七五 「□□信印」 前半이 결실되어 「信印」字만 해독할 수 있다. 字徑 〇·七〇·八 cm

七六 「□□□□」 이 와 같은 文字 不解讀의 封泥는 二六개나 國立博物

館에 소장되어 있으나 모두 파손되어 해독이 불가능하다.

七七 「不而左尉」 樂浪遺趾 出土, 完全品으로 文字가 선명한 四字二行의 小篆體로서 현재 소재지가 불명확하다.

七八 「前莫丞印」 樂浪遺趾 出土, 完全品으로 文字가 선명한 四字二行의 小篆體 역시 현재 소재지가 불명확하다.

이상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토되어 調査된 封泥인데 이 외에도 個人이 소장한 것중에 調査 안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이 資料는 日本人들의 樂浪 遺蹟趾 발굴이후부터 一九四五년까지의 資料에 의한 것임으로 그후 北韓에서 더 많은 資料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印章銘文

封泥는 주로 樂浪의 治趾였는 大同江面 土城里에서 출토 되었지만 印章은 그와 달리 樂浪時代의 彼葬者의 墓에서 出土되었다. 最初の 印章

출토는 一九一六년에 關野貞博士일행이 大同江面 石岩里 第九號 古墳에서 玉質龜鈕方印인 「永壽康寧」이라는 吉祥어인 文字刻이 있는 印을 발

굴했으며 一九一七년에는 大洞江面 土城里에서 日本人 向井業昌氏가 「王扶印信」 子母銅印을 얻었고 一九二三年에도 石巖里第五二號의 漆官內에서 「王雲」 銅印이 발견되어 墓 주인이 王雲이란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 一九二二년에 一九二五년 사이에 道南 韓范君印과 「荆榆信印」이 출토되어 日本人 白神壽吉씨의 수중에 들어갔고 一九二五

년에 原田淑人 씨가 石岩里第二五號 古墳를 발굴하여 「王肝信印」木印

을 얻었으며 二〇四號에서는 無字(刻印이 없던) 銅印이 발굴되었고 一

九三二년에는 小場恒吉씨가 貞栢里 一一九號 古本에서 木質의 「王光私印」과 「樂浪太守掾王光之印」을 얻어 모두 學界에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印들이 발견되어 學界에 소개되었는데 그 銘文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一 「永壽康寧」 玉質 小篆體로 龜鈕이며 印縱이 一·五六cm 橫이 一·五七cm

二 「王雲」 銅印으로 小篆體이며 龜鈕가 있다. 이 銅印은 一九二五年에 大同江面石岩里古墳의 棺에서 발견된 陰刻 銅印으로 印面 一·三二cm 厚 〇·七八cm

三 「王扶」 銅印 처음 日本人 山田鉢次郎씨가 蒐集하여 向井業昌氏수중에 들어가 후에 國立博物館에 들어갔다. 樂浪遺趾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나 확실치 않다. 子母印으로 되어 있으며 文字體는 篆體로 극히 가늘고 세밀하다. 위는 獅子鈕로 되어있고 側面에 子印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印面 一·一〇cm 全高 三·〇三cm

四 「韓范君印」 一九二四年 大同江面에서 출토, 처음 평양의 日本人 中西嘉市씨가 소장하고 있었다. 銅質로 四脚龜鈕이며, 小篆體의 陰刻印이다. 印面 一·四cm 高 一·五三cm

五 「荆榆信印」 陶質로서 小鳩陰刻이며 樂浪遺趾에서 출토되었다. 印面 一·七七cm 厚 〇·七三cm

六 「王盱印信」 「五官掾王盱印」 一九二五年 가을에 日本人 原田淑人씨가 大同江面石岩里 古墳에서 발견하였다. 木製兩面印으로 중간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고 다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一面은 「五官掾王盱印」이고 反對面은 「王盱印信」으로 되어 있는데 五官掾은 《後漢書》百官志五·諸曹條에 「有五官掾錄功曹及諸事」라고 하여 郡에 예속된 관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印面 二·四〇cm 厚 一·〇六cm

七 「五光私印」 樂浪古墳王光墓出土, 木質 小篆體 陰刻 印面縱 二·〇五cm 橫 二·一〇cm 厚 二·一〇cm

八 「樂浪大守五官掾王光文印」 王光王墓出土, 木質 篆字體. 본래 樂浪

에는 王氏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중 樂浪王氏出身으로 크게 成功한 사람은 王景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後漢光武帝建武六年(三〇)에 중국에 들어가 水利專門家가 되었다(註28)

九 「成之印」 銅質 兩面印 印面 一·五〇cm 〇·七cm

十 「臨淮大守章」 平安北道 寧邊 출토로 銅質이다.

十一 「周思傷印」 樂浪遺趾 출토 未詳.

3 無字印(印面만 있고 刻을 안한印)

一 鼻鈕銅印 樂浪遺趾石岩里 출토, 印面縱 二·三七cm 橫 二·三三cm 厚 二·二八cm

二 鼻鈕銅印 出토지 未詳, 印面 二·〇〇cm 橫 二·一四cm 高三·四八cm

三 鼻鈕銅印 出토지 未詳, 印面이 결실.

四 鼻鈕石印 出토지 未詳, 印面縱 一·七〇cm 橫 一·五七cm 高一·五八cm

五 鼻鈕石印 出토지 未詳, 印面縱 一·六〇cm 橫 一·五三cm 高一·〇〇cm

六 兩面石印 出土地未詳, 印面 一·五cm 厚가 〇·四〇cm.

이상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토된 封泥와 印章으로서 筆者가 조사한 資料의 전부이다(註29).

六 結言

印章의 대부분은 古墳에서 출토된 私印이었고 封泥는 樂浪郡 治地에서 출토에서 대부분이 官印의 性格을 띠우고 있었다. 출토된 封泥는 前漢, 新(王莽), 後漢, 紀晉, 어느 時代에 해당되는지 고증하기는 어렵다. 封泥는 漢의 직급 제도에 따라 文字의 구별이 완전하여 郡太守(大尹) 丞(守丞) 長史, 縣令, 長, 丞, 尉, 倉印 등으로 분류되고 私印은 개인의 印信(싸인)과 古詳印 등이다. 印章은 그 質이 玉, 銅, 石, 陶,

木 등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子母銅印은 잔혹 출토의 예를 볼 수 있는 것으로 韓國에서는 처음 출토되었다. 漢代의 縣治制에 대하여는 漢書百志公鄉表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漢舊儀》에 보면 「邊郡太守各將萬騎行障塞烽火追慮、置長史一人、掌兵馬丞一人、治民當兵行、長史領置部都尉千人」이라는 記錄이 있어 邊郡 縣에 官吏의 배치를 약간 언급하였으나 이것은 時代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郡縣制度는 본래 秦나라 秦始皇帝로부터 始作하였으며 前漢 景帝 中元二年(A.D.一四八)에 郡守를 太守로, 郡尉를 都尉로 변경시켰다(註②). 漢武帝는 月曆을 正月로 首歲로 삼고 土德으로 인하여 漢을 興國한다는 五行說을 믿어 五字로 構成된 單語는 吉詳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太守 이상의 印文은 五字構成體가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玄菟太守章」「遼東太守章」「代郡太守章」등인데 樂浪郡에서도 「樂浪太守章」 등이 모두 이와 같은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印章은 모두 前漢代의 것으로 추측이 된다. 王莽 始建國 元年條를 살펴보면 「又典兵秩位皆上卿號曰六監、改郡太守曰大尹、都尉曰太尉、縣令長曰宰、御史曰執」(註③)라는 記錄에서 王莽을 집권후 그의 復古主義 思想에 의하여 모든 제도와의 名稱을 古典대로 고쳤는데 太守를 大尹이라고 고쳤음으로 「樂浪大尹章」은 王莽時代의 遺物로 추측된다.

또 封泥 중에 「浪□丞」과 「樂□長□」은 漢의 지방제도 개편에 반영되는 것으로 續漢書百官志에 「郡當邊成者、丞爲長史、古今注曰建武十四年罷邊郡太守丞、長史領丞職」라는 예문으로 보아 西紀三六년에는 邊郡에 太守丞 직을 과하고 그 대신 長史를 設置하여 兵馬를 掌握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前漢代에 各縣의 官職에는 守令守長、守丞、守尉 등이 縣의 大小를 막론하고 있었으며 樂浪治地에서 출토된 各縣의 封泥는 위의 관직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느 朝代에 해당되는지는 考證하기가 어렵다. 참고로 樂浪 四百年 동안 변경되어 오는 郡縣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 樂浪郡 및 帶方郡의 縣을 모두 열거하였는데 이중의 출토된 封

朝 詡 涇 占 增 遂 駟 鏤 渾 樂 屯
 鮮 邯 水 蟬 地 城 望 方 彌 都 有
 合 帶 海 列 長 提 南
 資 方 冥 口 岑 奚 新
 帶方都治

朝 詡 涇 黏 增 遂 駟 鏤 渾 吞 屯 昭 夫
 鮮 邯 水 蟬 地 成 望 方 彌 列 有 明 租
 前漢時代 (郡治)
 合 帶 海 列 長 提 東
 資 方 冥 口 岑 奚 腕
 南部都尉治 東部都尉治

朝 遂 駟 鏤 渾 屯 含 帶 海 列 長 提 南
 鮮 城 望 方 彌 有 資 方 冥 口 岑 奚 料
 樂浪郡 帶方郡治

鮮 詡 樂 黏 增 遂 駟 鏤 渾 吞 屯 昭 合
 鮮 邯 亭 蟬 土 城 望 方 彌 列 有 明 資
 王莽時代
 帶 海 列 長 東 不 提 華 蠶 邪 前 大
 方 恒 增 岑 腕 耐 奚 麗 臺 頭 頭 莫 沮
 東部都尉治

後漢時代

紀晉時代

泥는 대부분 前後漢 時代로 생각된다. 그중 鑊方, 舂列, 帶方, 列口 華麗, 夫租, 南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토 되었다. 封泥는 公文書를 보낼때 簡片, 簡牘 등을 封하는 捺捺用으로 본래 잘 부서지는 物質로 되어 있어 한번 사용하면 망가져서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출토 역시 별로 완전한 것이 없다. 韓國에서出土된 封泥는 秩二千石인 郡太守 이하의 銀印青綬, 銅印墨綬, 銅印黃綬의 범위 내에서 출토되고 그印의 크기는 대부분이 二·一〇cm 내지 二·二五cm인데 이것은 漢代의 二千石 이하의 地方官 印章 규정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樂浪 출토 漢代의 封泥는 漢代의 制度和 印章을 研究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근래 中共에서 발표된 報告書에 의하면 湖南省 馬王堆에서 상당한 印章이 출토되었는데(註20) 그 크기를 比定해보면 樂浪 출토 印章들과 대동 소이함으로 樂浪의 封泥와 印章은 모두 漢의 格式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註〉

- ① 駒井和愛《樂浪》日本東京 中央公論社 一九七二.
- ② 林承國《漢四郡の 虛構を扶る》《月刊自由》서울自由社 一九七六年.
- ③ 金鍾太《樂浪時代の 銘文》《史學志》第九輯 檀國大學校史學會 一九七五年
- ④ 金鍾太《樂浪時代の 泉幣銘文考》《全北史學》全北大學校史學會 一九七五.
- ⑤ 高裕燮《韓國建築美術史草稿》서울 考古美術同人會刊, 考古美術資料第六輯 一九六四. P 一五.
- ⑥ AD三二三年에 高句麗 美川王(一四)이 樂浪郡을 치고 남내 二천여 명을 사로잡고 樂浪郡을 마지막 멸망시켰다.
- ⑦ 關野貞《朝鮮의 建築と藝術》東京, 岩波書店, 一九四二, P 二二.
- ⑧ 上同《朝鮮의 瓦文樣》P 四二五.
- ⑨ 關野貞《朝鮮美術史》서울, 朝鮮史學會 一九三一 P 二六.
- ⑩ 何浩天《漢書與漢代社會生活》臺北 中華叢書 國立歷史博物館歷史文物叢刊 第二輯.
- ⑪ 馮鵬《金石索》卷 一一一 參考.

⑫ 金鍾太《漆器工藝論》서울 一志社 一九七六.

⑬ 駒井和愛《樂浪》日本東京中央公論社 一九七二, P 一五三.

⑭ 資治通鑑 第九十五卷 晉紀顯宗威康 二年條 參考.

⑮ ① 陳鐘凡《漢魏六朝文學》臺灣商務印書館 一九六九, P 七〇.

② 李直方學《漢魏六朝詩論稿》《院籍詠懷詩論》臺灣商務印書館.

⑯ 駒井和愛《樂浪》《郡治はうつたか》日本東京 中央公論社 一九七二 P

⑰ 《漢書補注》(第七卷 百官公卿表上), 臺灣新文豐出版公司 一九七五.

⑱ 《後漢書集解》與服志下 第三十卷 紫綬條參考 臺灣新文豐出版公司 一九七五.

⑲ 周世榮《有關馬王堆古地圖的 一些資料和幾方漢印》《文物》一九七六年 一월 P 二八.

⑳ 劉効秦《人民中國》《最近發たをれた皇后の玉璽と西漢末期の實權をにぎつた 呂后. 一九七五, 一월호.

㉑ 《漢書》卷九十七 外戚傳, 孝成趙皇后傳參考. 臺灣新文豐出版公司 一九七五

㉒ 藤田亮策《朝鮮古文化綜鑑》樂浪篇 參考.

㉓ 藤田亮策《樂浪封泥考》《小田先生頌壽紀念朝鮮集》

㉔ 謙田重雄《樂浪封泥小考》《北亞細亞學報》第三號.

㉕ 宋希尚《漢代的水利專家樂浪人王景》《中華文化論集》中華文化出版社出版.

㉖ 關野貞《樂浪時代の遺蹟》一九四一년 P 三八〇參照.

㉗ 黃本驥《歷代職官表》臺灣榮天出版社 一九七三.

㉘ 《漢書》卷九十九 列傳第六十九 參照. 臺灣新文豐出版公司 一九七五年

㉙ 周世榮《有關馬王堆古地圖的一些資料和幾方漢印》《文物》一九七六 P 二八

(首都女子師範大學 講師)